

# 독일 프라이부르크 기본소득 연구소 (FRIBIS)의 윈터 스쿨 참가기



## 이지은

기본소득한국네트  
워크 이사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 1. 윈터스쿨 지원기

지난 겨울 언제나 습관처럼 BIEN 뉴스를 클릭했다. 지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호기심이 일었고, 머리를 약간 식히고 싶기도 했다. 그런데 어랏! 뉴스의 첫 페이지에 흰 백발에 볼 한 가운데까지 입꼬리가 올라가 인자하게 웃고 있는 필립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교수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얼굴을 클릭하고 나서 내용을 읽어보니, 독일 프라이부르크 기본소득 연구소Freiburg Institute for Basic Income Studies: 이하 FRIBIS에서 “오늘날 세계적 문제와 기본소득 논쟁”을 주제로 필립 판 파레이스의 지도하에 윈터스쿨을 개최한다는 내용이였다. 1월 16일부터 23일 5일 동안 기후위기, 팬데믹, 국제분쟁과 같이 현 시대의 큰 과제들이 기본소득 의제를 뒷전으로 밀어낼지 아니면 오히려 논의를 추동하는 기회가 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 참가대상자는 박사과정의 대학원생과 박사 후 연구원이었다.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책의 5~7장<sup>1)</sup>을 읽어가는 것이 요구사항이었다. 또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짧은 정책보고서<sup>2)</sup>를 팀별로 작성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의무사항이었다.

당시 나는 학위논문을 작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에 주저한 것이 사실이었다. 잠시 동안 이곳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기회비용에 대해 강렬하게 고민한 뒤, 숨을 한번 고르고 지원하게 되었다. 내가 기대했던 바는 먼저 판 파레이스 교수의 수업을 직접 듣는다는 것 그리고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있는 여러 학생들과의 교류, 마지막으로 그 외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미지의 가능성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었다.

지원한지 약 일주일만 지나서 참가를 수락한다는 기쁨의 메일을 받은 뒤, 내가 처음으로 준비한 일은 판 파레이스(2017)의 책을 다시 읽는 일이었다. 이 책의 번역서는 수업 때 이미 공부하였고 이후 여러 번 읽었었기 때문에 주요 흐름과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원서로 읽었을 때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 이 책을 읽었을 시점과 비교했을 때, 나의 관점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한 것도 작용했겠지만, 책에서 다루고 있는 방대한 내용과 세부적인 사례들이 다시금 눈에 들어왔다. 특히 각 장의 각주까지 세세하게 살펴보게 된 기회였다. 또한 번역문에서 담아내기 어려운 원문의 맛과 힘이 남다르게 느껴졌다. 특히 서문은 다시 읽어도 신선하고 강렬했으며 특히 서문의 마지막 문단은 여러 번 소리 내어 읽었다.

“A basic income is not just a clever measure that may help alleviate urgent problems. It is a central pillar of a free society, in which the real freedom to flourish, through work and outside work, will be fairly distributed. It is an essential element of a radical alternative to both old socialism and neoliberalism, of a realistic utopia that offers far more than the defense of past achievements or resistance to the dictates of the global market. It is a crucial part of the sort of vision needed to turn threats into opportunities, resignation into resolution, anguish into hope.”<sup>3)</sup> (강조 필자)

이 책은 약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읽어보아도, 서구 중심적이지만 기본소득의 교과서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시-공간을 아울러 방대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심 이번 수업에서 최근의 위기들과 연계하여 기본소득 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한 일은 FRIBIS에 대해 살펴보는 일이었다. 사실 이전에도 홈페이지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눈여겨 살펴보지는 않았다. 이번 기회에 자세히 살펴보면서 놀라웠던 점은 꽤 큰

1) 『21세기 기본소득: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홍기빈 역, 2018)로 번역되었으며, 책의 5~7장은 기본소득의 철학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에서의 쟁점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2) 이후 FRIBIS 홈페이지에 올라올 예정이다.  
 3) 원서 3페이지, 번역본의 17페이지에 해당한다. 책의 프롤로그는 영문으로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규모의 연구소라는 점,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며 기본소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각 연구팀은 연구자 그룹만이 아니라 활동가 및 외부연구자를 포함한 융합적인 조직구성 속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소에 대한 정보는 부록에서 추가적으로 다뤘다. 아무튼 나는 나와 관심분야가 비슷하다고 생각한 박사생 2명에게 미리 이메일을 보냈다. 다가오는 윈터스쿨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고 시간이 괜찮다면 따로 만나 현재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더 얘기해보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한 친구는 돌봄과 공유지에 관심이 많았으며, 다른 한 친구는 생태적 전환을 중심에 두고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있었다. 윈터스쿨에서 이 두 친구와 이야기했음은 물론, FRIBIS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연구원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작업은 한국의 사례를 잘 설명할 수 있기 위해 내용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특히 2022년 대선이 한국 기본소득 운동에 남긴 과제와 의미, 이후 기본소득한국네트워에서는 기본소득을 생태·사회적 전환 속에서 의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유부 배당으로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 2. 윈터스쿨 참여기 : 2023년 1월 16일 ~ 20일<sup>4)</sup>

수업은 따듯한 오후에 시작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겨울을 어느 때보다 따듯하게 만들었고 유럽도 예외는 아니었다. 도시 중심부를 흐르는 드라이잠Dreisam 강에서 약 5분 정도 걷다보면 수업하게 될 건물이 있었다. 여기에 온 참가자들은 대부분 FRIBIS에서 연구 및 활동을 하고 있는 박사과정의 대학원생, 박사 후 연구원이었다. 외부에서 온 참가자는 나를 포함하여 독일 내 다른 지역대학의 연구원, 브라질에서 온 에두아르도 마타라조 수플리시Eduardo Matarazzo Suplicy<sup>5)</sup>, 핀란드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박사생 정도였다. 5일 간의 수업 일정은 생각보다 꽤나 빡빡했다. 서로 짧게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판 파레이스 교수는 기본소득 역사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 역사 이야기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 역사 수업은 그야말로 생생했고 동양인인 내게 매우 이국적으로 느껴졌다. 전-기본소득의 역사에 대한 설명은 기원전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기본소

4) 나는 이 장에서 인상과 느낌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메모했던 것, 강의 이후 다시 한 번 책을 보면서 다시금 새롭게 이해하게 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책에서 발견한 주옥같은 문장들도 자주 인용하였는데, 인용페이지는 번역서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며 중요개념의 경우 영문을 함께 표기하였다.

5) 에두아르도 수플리시는 브라질 노동자당의 창설자이자 1997~2015년 상파울로주의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룰라 전 대통령과 함께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운동을 전개했다. 그는 모든 브라질 국민에게 기본시민소득renda basica de cidadania을 지급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법을 의회의 양원과 룰라 대통령이 서명하도록 촉구하여 법안이 제정되었다

일정표

월요일	기본소득의 역사
1300-1330	환영
1330-1630	강의및 토론 (필립 판 파레이스)
1630-1730	오늘 수업 정리/다음날 수업내용 공지
화요일	철학
0900-0930	월요일 수업 복습
0930-1045	강의및 토론 (필립 판 파레이스)
1045-1100	타타임
1100-1230	내부 토론 (필립 판 파레이스 & Lisa Reuter)
1230-1330	점심식사
1330-1630	소규모 그룹 토론
1630-1730	전체 토론 및 정리
수요일	경제
0900-0930	화요일 수업 복습
0930-1045	강의및 토론 (필립 판 파레이스)
1045-1100	타타임
1100-1230	내부 토론 (필립 판 파레이스 & Tobias Jäger)
1230-1330	점심식사
1330-1630	소규모 그룹 토론
1630-1730	전체 토론 및 정리
목요일	정치
0900-0930	수요일 수업 복습
0930-1045	강의및 토론 (필립 판 파레이스)
1045-1100	타타임
1100-1230	내부 토론 (필립 판 파레이스 & 에두아르도 수플리시)
1230-1330	점심식사
1330-1630	소규모 그룹 토론
1630-1730	전체 토론 및 정리
(1815-1945)	프라이부르크 대학 공개강의(필립 판 파레이스)
금요일	결론: 오늘날 글로벌 문제가 기본소득을 뒷전으로 밀려나게 할까? / 글쓰기 워크샵
0900-1030	목요일 수업 및 공개강의 복습
1030-1045	타타임
1045-1200	글쓰기 워크샵
1200-1245	최종 정리
1300-1400	점심 식사

특의 5가지 특징 중 현금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특징을 만족시킨 정책이 있었다고 했다. 이후 18세기 말엽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확산되기 전까지 유럽의 국가들은 사회부조와 사회보험 모델을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판 파레이스 교수는 복지국가의 성장 맥락 속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표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당대의 시대적 필요 속에서 귀납된 것임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비로소 ‘권리’라고 명시한 토머스 페인의 제안을 기본소득 이념의 역사적 시초로 보고 있었다. 페인이 기본소득을 정당화했던 논리는, 기독교 전통에 근거하여 땅이 인류 전체의 공동재산이라는 사유에 기반한다. “내가 호소하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권리이며, 베품이 아니라 정의다.”(p.179) 이후 이러한 아이디어를 보다 확장시킨 토머스 스펜스는 성인기의 지금이 아닌 평생에 걸친 지급, 개간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가치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건물, 기타 모든 개발물들을 포괄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안은 교구단위였고 정치적으로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후 전국적 규모에서의 기본소득을 주장한 조제프 샤를리에에는 “나라 전체의 ‘토박이’ 거주자 모두에게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세 달에 한 번씩 획일적인 ‘영토 배당금(territorial dividend)’을 지불하며, 그 재원은 건물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토지를 임대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지대로 충당”(p.184)하자고 주장했다. 페인, 스펜스, 샤를리에의 제안들은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사상은 자연은 만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사적소유는 정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 위대한 유토피아주의자들 Great Utopians 중 한 사람이었던 샤를 푸리에의 『가짜 산업』이라는 책에서 반복된다. “만약 문명 질서가 인간에게서 수렵, 어로, 채집, 목축이라는 자연적 생계의 네 가지 활동 - 이것들이야말로 말로 인간의 제1권리를 이룬다 - 을 빼앗아갔다면, 토지를 가져간 계급은 이렇게 좌절 상태에 빠진 계급에게 최소한의 충분한 생계수단을 빚지고 있는 것이다.”(p.189) 하지만 푸리에가 염두에 둔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보편적 제도는 아니었다. 이후 푸리에의 제자인 빅토르 콩시데랑은 아무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 최소소득을 주장했고 이것이 노동의 매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했다(p.189). “최소한의 소득을 미리 주는 것(avancer le minimum)은 자유의 기초이며, 프롤레타리아 해방을 보장하는 장치다. ‘최소소득 없이 자유 없다. 일하고 싶을 만큼 산업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최소소득도 없다.’ 이것이 대중 해방의 진정한 핵심이다.”(pp.189~190)

존 스튜어트 밀은 『정치경제학 원리』 2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면서 푸리에주의 Fourierism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이 (푸리에주의적) 시스템은 사적 소유의 폐지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상속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생산물의 분배에 있어서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도 감안할 것을 공공연히 주장한다. (중략) 분배에 있어서 먼저 일정한 양의 최소소득이 공동체 성원 개개인 모두에게 생계비로 배당되며, 그 개인이 노동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그렇게 한 뒤에 남은 생산물은 노동, 자본, 재능이라는 세 가지 요소 사이에서 미리 결정된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나뉜다는 것이다.”(p.190)

이후 기본소득의 이념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으로 퍼져나갔으며 자세한 내용들은 책의 4장

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1986년 9월 샤를 푸리에 집단<sup>Colletif Chareles Fourier</sup>이 전 유럽을 아우르는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회합을 최초로 조직하였으며, 이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전신인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sup>BIEN</sup>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참고로 샤를 푸리에 집단은 사회학자 폴-마리 불랑제<sup>Paul-Marie Boulanger</sup>, 경제학자 필리프 드페이<sup>Philippe Defeyt</sup>, 철학자 필리프 판 파레이스에 의해 조직되었다.

판 파레이스 교수는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제안된 역사적 배경들을 깊이 있게 짚어 설명했다. 짧은 시간 역사 강의를 듣고 나서 그 장구성에 다시금 놀랐다.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는 시대적 필요에 따라 내용이 변화해왔으며, 이러한 배경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현 시대에 필요한 교훈과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설명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론은 여러 흐름 중 하나이지만, 명백한 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당위가 ‘권리’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정당성이 인간의 필요를 원천적으로 채울 수 있는 공유자원에서 비롯한다는 점이다. 2023년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공유부 배당으로 주장하는 것의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역사에 대해 좀 더 알고자 한다면 Torry(2021)의 책을 참고할 수 있겠다.<sup>6)</sup>

####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윤리적 논쟁

둘째 날은 윤리적, 철학적 측면을 다뤘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판 파레이스 교수의 강의와 이후 FRIBIS의 연구원 한 명과 판 파레이스 교수와의 내부토론, 그리고 점심식사 후 학생들의 소규모 토론이었다. 먼저 강의의 요지는 기본소득을 분배적 정의<sup>distributive justice</sup>의 개념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유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라고 보는 관념을 말하며, 이때의 자유는 형식적 자유<sup>formal freedom</sup>가 아니라 실질적 자유<sup>real freedom</sup>로 해석하는 것이다(pp.251~252). 즉,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단순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진정한 역량<sup>genuine capacity</sup>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p.252).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주자는 것이다(p.252). “엄격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분배적 정의 개념이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가 아니라, 그러한 자유의 근저를 형성하는 선물<sup>gift</sup>의 최소극대화다. 즉 그 선물이 실질적 자유를 행사할 물질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가장 소득이 적은 이들의 소득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p.254) 판 파레이스는 오늘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선물을 받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배분은 아주 불평등하며,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하는 역할은 이 선물을 모든 이들이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p.254).<sup>7)</sup> 그는 기본소득을 넓은 의미에서 공동 상속물<sup>common inheritance</sup>

6) Torry, M. (2021). Basic Income: A History. Edward Elgar Publishing.

7) 그는 이후에서도 “우리의 경제는 사실상 선물을 나눠주는 기계로 기능할 뿐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공동유산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그 정도는 아주 불평등한 실정이다.”라고 말한다(p.256).





쉬는 시간에 단체 사진

을 분배하는 것으로 생각한 벨러미, 콜, 사이먼의 제안을 본문에서 소개함과 동시에 이외에도 Marie-Louise Duboin(1988), Gar Alperovitz(1994), Ronald Dore(2001) 등도 유사한 제안을 했음을 언급하고 있다(각주 25, p.306). 그는 집단적으로 물려받은 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다시 8장의 지구적 차원의 분배정의를 다루면서 논의를 심화하고 있다.

심화된 논의(책 8장의 내용)로 나아가기 전에, 각주 17과 18의 부분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싶다. 각주 17에서는 공유부 배당으로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Michel Bauwens and Rogier De Langhe(2015)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설령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해도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라 커먼즈commons에 참여한 데에 대한 총액으로 지불되는 보상인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호소는 대안적인 사회보장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안적인 방법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의 쇠퇴”를 반영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조직하기 위해 가지게 된 새로운 수단”을 반영하는 것이다(각주 17, p.304).

판 파레이스 교수는 분배정의 개념에 기반하여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기본소득을 하나의 인권으로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고 설명한다(각주 18, pp.304~305). 무조건적 소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소득에 대한 무조건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인권의 측면에서 빈곤에서 빠져나오기에 충분한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여러 가지 소득보장형태(부의 소득세, 보편적 근로장려금 등)로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 논리는 다르다. 기본소득은 공정한 분배이지 공정한 재분배가 아니라고 말하면서(p.257)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시장의 작동을 통해 여러 생산요소에 대한 보상

이 결정되는 과정의 배후에 숨어있는 중요한 현실은,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를 자본가가 전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가 과거에서 물려받은 가치를 전유한다는 것이다. 물론 두 집단 사이에서도 또 각각의 집단 내부에서도 그 전유의 정도는 대단히 불평등하지만 말이다.”(p.306, 필자 강조)

기본소득의 철학적 정당성에 대해 세 가지 주요 비판이 있으며, 이에 대해 이렇게 반박한다. 첫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개인이 성취한 결과물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오해에 대해, ‘모든 사람의 삶에서 맞이하게 될 실질적 자유, 가능성들possibilities, 기회들opportunities을 좀 더 평등하고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것’(p.258)이다.<sup>8)</sup> 둘째, 기본소득의 액수가 과도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유증, 기부, 근로소득, 자본소득, 각종 거래, 소비, 탄소배출, 부가가치 등 무엇이든 세금을 매길 수 있으며, 단일세, 누진세, 역진세, 이들의 조합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pp.258~259). 셋째, 기본소득이 결국에는 사장에 부담을 주는 기제가 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오히려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상속’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정한 청구권이 최소한 잠정적으로 현금형태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 파레이스는 이러한 설명이 공화주의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자유주의적-평등주의적 접근에 속한다고 말한다. 첨언하면, 자유-평등주의적 접근에 속한 여러 철학자들이 얼핏 보면 기본소득을 지지할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추구하는 사회상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다.

나아가 판 파레이스 교수는 책의 8장에서 평등주의적 사회정의의 범위scale 문제를 다루고 있다. 어떠한 사회정의 개념을 채택할 것인가와 무관하게, 자원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단위를 인류 전체로 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정보, 자본, 재화, 노동력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지구화 시대에 더욱 중요한 정의론이다. 만일 분배정의의 스케일을 지구 차원으로 확대한다면 두 가지 측면에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은 이민자의 유입과 기여자의 유출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 이미 유럽 내에서 난민 문제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국중심주의에 기반한 이민자 배제 전략도 존재한다. 국경을 넘어서 부정의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실정이다.

판 파레이스는 지구적 기본소득의 도입이 유토피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본소득과 같은 지구적 차원의 분배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때, 각 국의 복지제도와와의 관계 속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의 이주 및 난민 문제를 일정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지구적 기본소득의 예시로든 것이 토지세를 통한 배당, 탄소세 부과를 통한 탄소배당 정책이다. 하지만 그는 이것은 일부 사례에 해당한다며, “지구적 정의가 요구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성원들 사이에서 실질적 자유를 공정하고도 지속가능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중략) 하지만 희소한 공동자원이 지금 아주 불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래 세대가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세대 내부에서도 공정한 해법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마

8) 그는 “정의의 핵심은 기회, 역량, 가능성, 실질적 자유를 평등화하는 것이지 결과를 평등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pp.261~262)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아마티아 센의 캐퍼빌리티capability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참여소득을 캐퍼빌리티 관점으로 해석하여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의 결합안도 제시될 수 있다(이상준, 2021, 2022).



련하기 위해 힘써야”(p.523)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공동 상속물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부터 지구적 차원까지 모든 기회들을 움켜쥐어야 한다고 보았다.

오후에서는 주로 기본소득의 주요한 비판 6가지 문제에 대해 소규모 토론이 이뤄졌다. 6가지 비판 지점으로는 첫째, 서비스 방식이 아니라 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둘째, 상대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가령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기존의 복지제도를 대체해야 하는가? 셋째, 기본소득이 여성의 지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넷째, 말리부 서퍼에게 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어떻게 연대(solidarity)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인정(recognition)의 측면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내가 속한 토론그룹은 주로 노동윤리, 말리부 서퍼에 대해 논의했다. 말리부 서퍼는 하루 종일 파도만 타며 일은 하지 않고 여가만 즐기는 한량을 말한다. 과연, 말리부 서퍼들이 그저 놀기 때문에 소위 ‘사회적으로 무가치’하고, 이에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상호성(reciprocity)의 원리에 위배하는 것일까? 최근 <아바타2: 물의 길>를 봤던 나에게 말리부 서퍼는, 영화에 나왔던 바다생태계를 돌보는 멧카이나 부족과 다를 바 없었다. 인간들이 보기에 ‘바다 나비족’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바다를 헤엄치는 종족으로 보이겠지만, 그들은 바다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관계를 맺으며 화합하며 살아감으로써 그 생태계 자체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연의 섭리를 해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 자체가 중요한 일인 것이다. 기본소득을 주면 말리부 서퍼와 같은 게으름뱅이를 양산할 것이라는 사고는, 생산적인 일과 그렇지 않은 여가를 구분하는 편협한 노동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논의로 이어졌다. 무언가를 지키는 일은 과연 가치가 없는 일일까? 일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는 사고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토론을 했었다.

### 기본소득의 경제적 측면

셋째 날은 기본소득의 경제적 측면을 다뤘다. 강의에서는 크게 네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첫째, 기본소득과 부의 소득세의 차이, 둘째, 전 세계에서 있었던 실험들, 셋째,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 넷째, 여러 가지 자원마련방식이다.

먼저 기본소득과 부의 소득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① 자산조사에 기초한 최저소득제도, ② 기본소득에서의 순소득, ③ 부의 소득세에서의 순소득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sup>9)</sup> 물론 이러한 비교는 공공지출이 전혀 없다고 가정함으로써 이론상의 비교이지만 이를 통해 각 제도의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62년 밀턴 프리드만에 의해 유명해진 부의 소득세는 빈곤함정 및 복지의존성을 완화하기 위해

9) 책의 2장과 6장의 일부(pp.90~101, 318~324)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경제학 강의를 하는 판 파레이스 교수

기존의 복지체계를 소득세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기본소득과 부의 소득세의 유사점은, 기존의 자산조사에 기초한 최저 소득제도에서는 100% 한계세율로 인해 빈곤함정과 복지의존성을 발생시키지만(그림 3.1 참고), 이들 제도에서는 한계세율이 100%로 보다 낮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그림 3.2와 3.3 참고). 일을 해도 복지급여가 깎이지 않기 때문에 근로유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빈곤함정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제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실질적 자유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부의 소득세의 경우에 ① 주로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② 수령시점이 신청시점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차(time lag)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혜자의 입장에서 효용이 떨어질 수 있고, ③ 정기성

측면에서 연 단위 지급이며 ④ 소득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주요 특징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부의 소득세와 비교하여 기본소득의 장점은 첫째, 후불 지급이 아닌 사전적으로 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빈곤을 완화하는데 더 좋은 제도라는 점, 둘째, 빈자와 부자를 나누는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보편적 제도라는 점이다. 이 점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부의 소득세는 손익분기점, 그림 3.2에서  $y^*$ 의 이하인 부의 소득세와  $y^*$  이상인 양의 소득세가 동일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순수혜자와 순기여자가 확연하게 구분된다. 이로 인해 수혜자에 낙인효과를 발생시키며,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달리 불확실성을 낳는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예측가능한 금액이 미리 지급되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측면에서 부의 소득세가 훨씬 유리한 부분은 지출의 총량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다. 부의 소득세가 기본소득보다 ‘훨씬 비용이 싼 제도’로 보이기 때문에 정치적 수용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경제학적으로 재정환상(financial illusion)임을 설명했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모두 고려하면, 두 제도의 순효과가 같게 설계될 지라도 부의 소득세를 포함한 자산조사형 소득보장제도의 경우 ‘내는 돈’이 적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적 측면에서 통치성(governmentality)의 문제이기도 하다. 세금을 조금 걷어서 소수의 빈자에게 지급할 것인가 혹은 모두에게 걷어서 모두에게 지급할 것인가의 통치성. 두 제도의 경제적 비용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통치성을 더 선호할 것인가?

## 순소득 비교

그림3.1 자산조사에 기초한 최저소득제도에서의 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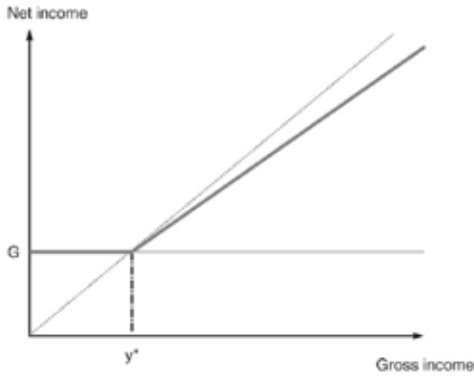


그림3.2 기본소득에서의 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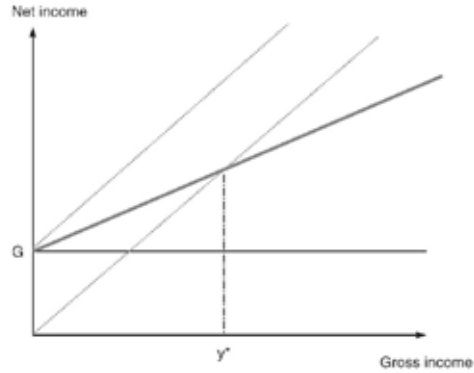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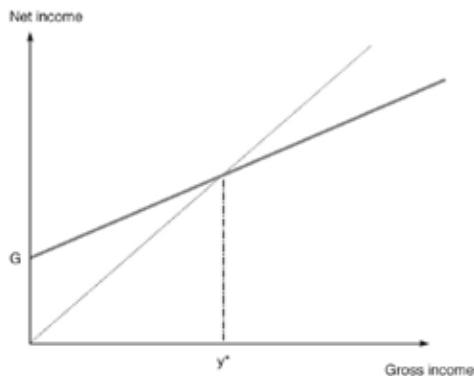


그림3.3 부의 소득세에서의 순소득



주)

- 가로축: 총소득 = 조세 및 이전소득 이전
- 세로축: 조세 및 이전소득 이후
- 45도 점선: 세금이 전혀 없고 최저소득보장이 없는 상태에서의 순소득, 순소득 = 총소득
- G: 최저소득 수준
- 굵은 선: 자산조사에 기초한 최저소득제도에서의 순소득
- $y^*$  이하: 제도의 순수혜자,  $y^*$  이상: 제도의 순기여자

그림출처: 책의 pp.91~93의 그림 발췌

다음으로 다뤘던 것은 전 세계에서 있었던 기본소득의 실험들이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소규모로 이뤄졌던 여러 실험들 외에, 2008~2009년 나미비아의 실험, 2011~2012년에 있었던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주에서 있었던 실험, 1970년대 북미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친 부의 소득세 실험, 그리고 가장 최근의 네덜란드와 핀란드 실험까지 지속적으로 소득보장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실험들이 있어왔다. 하지만 판 파레이스 교수가 강조했던 부분은, 이러한 실험들이 기본소득의 고유한 특성인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제한된 기간과 순기여자들을 배제하고 있으며 해당 노동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표본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에 효과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험은 대중의 이목을 끌고 정치적 주목을 받기 때문에 정책논의의 확산에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큰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이러한 실험들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은 계량경제학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일부 충족할 수 있다. 주로 젠더, 아동의 수와 연령, 배우자 소득 등에 따라 구분된 여러 범주의 사람들이

수행하는 노동의 양과 한계 순소득을 관찰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다(p.335).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순소득의 총액은 증가하지만 자원마련으로 인해 한계소득은 감소하게 되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시간을 줄일 것으로 예측된다. 여러 나라에서 몇 가지 모델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종합적으로 도출된 예측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노동시장의 참여와 평균 노동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p.336).<sup>10)</sup>

그러나 판 파레이스가 강조한 것은 계량경제학 모델의 두 가지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첫째는 이러한 결과값이 특정한 시공간과 문화-제도적 조건 속에서 도출된 값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달라지면 다른 결과가 예측될 것이다. 둘째는 계량경제학 모델들은 노동공급 효과에서 고용의 양적 측면에 주목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에서 주목하는 여러 효과들을 포착하지 못한다. 가령,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처우가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이러한 일자리의 고용조건(질)이 나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기본소득은 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효과’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이다(pp.62~67). 하지만 시뮬레이션 모델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및 노동의 질적 측면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뿐더러 이에 대한 효과를 알 수 없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델의 쓸모는 몇 가지 노동공급 감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여러 가지 방식의 자원마련이다. 조세 및 복지제도를 잘 갖춘 국가일수록 개인 소득세는 주요한 재원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소득세 체계가 덜 발달된 국가의 경우 다른 대안적 재원을 더 찾아보는 것도 이점이 있다. 책의 6장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듯이, 자본, 자연자원, 화폐, 소비에서 비롯한 재원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부분은 유로배당의 재원이다. 먼저 유로배당의 재원은 부가가치세이며, 범국가적 조세체계로 부가가치세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독일의 괴츠 베르너가 독일 기본소득 모델의 주요 재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주장했고 이는 이후 스위스의 국민투표의 기본소득 모델에서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채택하는데 영향을 주는데, 과연 기본소득 재원으로서 부가가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탐구를 통해 향후 범국가적 기본소득의 재원안을 고려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오후의 소규모 토론에서 나눴던 주제는 이동성(mobility) 관련이었다. 사회정책을 전공하고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연구를 하고 있는 마틴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만일 유로배당이 실시되어, 전 유럽국가에서 동일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지역 간 이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으며 이것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제기이다. 유럽의 경우 2023년 2월 기준 27개국인 유럽연합(EU)에 가입하여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 통합되었다.<sup>11)</sup>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내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이동성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간 주거비, 생활비 등의 차이가 존재하

10) 각주 20과 21(p.382)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11) 1985년 쉥겐 조약이 체결되면서 회원국 간 출입국 통제가 사라져 이동이 자유로워졌고,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발효되면서 단일통화인 유로euro가 회원국 간에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다.

기 때문에 구매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오히려 생활지출비가 싼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상당히 흥미로웠으며 이에 대한 한국의 사례를 들어 토론했다. 한국의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과 재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금액을 추가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존재했고, 소비처를 지역사회 내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기제도 존재했음을 설명했다. 마틴은 흥미롭게 들었으며 재원 마련 방식은 정책공학적으로 향후 많은 이슈가 존재할 것이라고 의견을 보냈다. 하지만 여전히 판 파레이스 교수는 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답했다. 먼 미래이겠지만 ‘만일 아시아 단위에서 기본소득 모델을 구상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델을 제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스쳤다.

###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넷째 날은 기본소득의 정치적 측면에서 논의했다.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윤리적 측면과 매우 밀접하다고 판 파레이스 교수는 설명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대체로 기본소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측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다뤘다. 먼저 노동조합이다. 현재의 복지국가를 형성하는데 노동자 계급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영국, 미국,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 노조의 반응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다만 네덜란드의 식품산업 노조는 기본소득을 지지했다. 특히 노조의 구성이 여성, 저임금의 시간제 노동자의 비중이 높았다는 특징이 있다. 네덜란드의 사례를 제외하고 일부 노조 지도자들이 우호적 입장을 내기도 했지만, 대체로 노조의 반응은 무관심이었다(p.406).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소득의 경우 정부가 시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며 이 과정에서 노조는 개입하지 못한다. 또한 기존의 노동정책 및 사회정책을 통해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확고한 듯 보인다. 오히려 기존에 조직화 되지 못한 불안정 노동자들precariat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그룹에는 소수의 기업가들이 있다. 인상적인 사례에는 독일의 사업가인 괴츠 베르너(1994~2022)의 주장이다. FRIBIS 연구소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재단의 기부자이기도 하다. 그는 독일의 주요 약국 체인인 DMdrogerie market<sup>12)</sup>의 창립자이자 CEO이며, 기본소득의 강력한 옹호자이다. 2005년 경, ‘하르츠 IV’ 개혁으로 수급자들의 근로를 촉구하는 압력이 증가하였는데, 이때 베르너는 기본소득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소비세를 재원으로 모든 형태의 소득세와 기존의 소득이전의 다수를 저지하는 방식으로 먼저 1,200유로(당시 독일 1인당 50%가 넘는 액수)의 기본소득을 주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약간 완화시켜 몇 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그는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의 인지학anthroposophy 교의에 근거하여, 기본소득이야말로 노동자들을 더

12) DM은 한국의 올리브 영과 같이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가정용품 등을 파는 소매점이다. 유럽 12개국 3,700개 이상의 매장에서 62,6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출처: 위키백과).

욱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경제를 더 잘 작동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을 하나의 문화적 총동 Kultruimplus으로 보는 그의 관점은 이후 스위스의 기본소득 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pp.418~419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여성 또한 기본소득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이다. 이유는 여성은 현재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고 성별 임금격차도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여성들에게 금전적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 내부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합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이 기존의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사회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집단이다.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민주의 정당은 네덜란드 노동당PvdA<sup>13)</sup>을 제외하고 거의 없다. 사민주의 정당보다 더 좌쪽에 있는 정당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열의가 더 낮지만,<sup>14)</sup> 가장 중요한 사례는 독일 좌파당Die Linke이다. 판 파레이스는 베르너 쯔바르트(1896)가 “모든 사회주의 윤리에 있어서 중심점을 차지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찬미”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사민주의를 포함하여 사회주의 정당들이 기본소득에 인색한 이유를 노동윤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를 푸리에와 같은 ‘유토피아 사회주의’에서는 보다 자유에 방점을 둔다. 그는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전통을 되살린다면 강조점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노동과 놀이의 점진적 통합에 있다”(p.438)고 말하면서 마르크제의 1967년의 강연 <유토피아의 종말>의 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지금 좌파 인텔리겐차의 전위 집단 내에서 다리 푸리에의 저작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본인들도 인정했듯이, 푸리에야말로 자유로운 사회와 자유롭지 못한 사회의 질적 차이를 명확하게 밝힌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노동이 놀이가 되는 사회, 심지어 사회적 필요 노동조차도 해방된 인간의 진정한 필요와 조화를 이루며 조직될 수 있는 사회의 가능성을 아무 두려움 없이 이야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마르크스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p.438에서 재인용, 강조 필자)

또한 기본소득의 주요 지지집단으로 녹색당이 있다. 1970년대 말 정치무대에 등장한 이후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가장 크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곳이 녹색당이다. 그러나 전체 연립정부에서 소수 당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기가 어려운 구조이고 기본소득보다 더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있다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당의 최우선의 목표는 아닐 수 있다.

13) 1980년대 초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촉발한 것은 앞서 논의한 식품산업노조 덕분이었다. 20년 후인 2016년 최종 제출된 기본소득 제안은 사실상 부의 소득세였다(pp.432~433, p.485)

14) 핀란드의 좌파동맹Vasemmistiliitto, 아일랜드의 소규모 정당인 좌파민주당Democratic Left,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 등이 있다(pp.434~435).





수플리시의 노래

이후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에두아르도 수플리시의 이야기였다. 브라질이 어떻게 기본시민소득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는지, 단계적 도입을 왜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기본소득이 단순히 소득지원이 아닌 인적자본을 증진시키는 기능까지 기대했었다는 것 등등. 그의 이야기는 노래로 마무리 되었다. 갑자기 자신의 스웨터를 벗었는데, 그 안에 하얀색 반팔티에 밥 딜런의 “Blowin' in the Wind”의 후렴구가 적혀있었다. 함께 노래 부르기를 청했고, 나는 어떤 문화적 배경과 심지어 이 노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입을 움직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1963년에 발표된 이 곡은 반전과 평화를 의미하는 저항가요의 의미를 가졌다. “친구여, 그 답이 바람 속에서 날아가. 바람 속에서 날아가고 있다고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 in the wind”라는 후렴의 내용은, 마치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절박한 사회적 요구들과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있는 답들이 그저 힘없이 날아가고 있는 것을 묘사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노래를 모를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 가사가 적힌 반팔티를 입고 와서 함께하자고 제안한 그의 다정함에 감사함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그와 관련된 다른 하나의 인상적인 에피소드는 교황에게 쓴 편지였다. 쉬는 시간에 그는 여기 모인 판 파레이스 교수와 자신, 그리고 참여 학생들이 함께 교황에게 편지를 써보자고 제안했다. 이 모임에 취지, 여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우리가 다시 기본소득을 지지하고자 하는지를 적어 맨 아래 모두의 서명을 받은 뒤 교황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비록 답은 받지 못했지만, 이러한 에피소드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을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냥 작은 것부터 실현시켜본다는 의미에서 진보적이라 생각했다. 그는 81세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 브라질에서부터 왔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느껴졌다.

마지막 수업

마지막 수업은 어제 저녁,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있었던 판 파레이스의 공개강의<sup>15)</sup>에 대해 그리고 수업 전반에 대해 이야기했다. 목요일 공개강의에서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기본소득 운동 혹은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논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대학생들이 주로 참여하는 자리였고 물론 윈터스쿨을 듣는 우리들도 참여했다. 판 파레이스는 현재의 글로벌 위기를 코로나19, 기후위기, 전쟁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거대한 비전과 이에 정합하는 논리와 정책들, 그리고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코로나19의 발발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게 된 기제가 되었으나, 선진국가의 경우 기존의 수급요건 및 기간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혁이 수행되거나 일부 국가에 한해서 일시적 현금지급으로 수행된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본소득의 방향에 대해 논해보자고 제안했다. 그가 설명한 기본소득의 필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 손실에 대한 공정한 분배, 둘째, 생산력으로서의 자유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본소득은 소득보장의 의미를 넘어 기존의 인적자본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인적자본을 개발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셋째, 우리에게 유토피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유가 매우 제약되어 있는 사회에서 경제적 안정을 마련하고 실질적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다.

5일 동안 기본소득의 역사에서부터 기본소득의 개념과 특징, 현실 속 사례들과 그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윤리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을 망라하여 공부하고 토론했다. 시·공간을 아울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각자의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이 마련되지 못했지만 부족한 지식을 채우고 새로운 관점을 접하게 된 시간이었다. 마지막 수업은 책상을 탕탕탕 두드리면서 마무리되었다. 독일은 박수 대신 책상을 여러 번 두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나눈다고 한다.

기본소득이라는 찰흙이 있다. 이 찰흙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을 특징으로 한다. 각각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기본소득제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구별 기본소득 여행을 하면서 발견했던 여러 모양들은 각자의 유토피아 혹은 사회상에 따라 지어졌다. 작게 성공한 사례도 있었고 다수가 역사의 뒤편길에 남겨진 실패한 사례로 남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끈질기게 살아있다. 어떠한 모습의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인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다.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시대가 점점 더 가까워오면서, 점점 더 일자리는 소멸하지만 생산성은 고도화된 사회, 그리고 환경은 무참히 파괴되어 위험이 점점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부의 불평등은 더욱 쉽게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공동자원의 파괴 및 착취 문제 그리고 불평등의 심화는 기본소득 운동에서 핵심이 될 것이다. 위대한 유토피아인들이 어디 유럽에만 있겠는가? 2023년 한국사회에서 거대한 이상을 품은 유토피아인

15) 아래 홈페이지에 강의영상을 볼 수 있다. <https://www.fribis.uni-freiburg.de/en/2023/philippe-van-parijs-a-world-in-crisis-boost-or-damper-for-basic-income/>

들이 이미 존재하고 또 벌써 개미처럼 자신과 우리의 이상을 짓고 있다. 우리 또한 그러하다. 꿈을 모아 실현하는 것, 그 방향과 다양한 모양들을 지구 반대편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이 전쟁 후 노동계급의 포섭을 위해 사회보험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였고 이것이 현대 복지국가의 주요 모델이 되었듯이, 시대적 필요가 잘 준비된 유토피아적 이상과 만난다면 가능성은 있다. 지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기본소득의 필요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떠한 사회상을 그려낼 것인지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실현해나가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 공론장에 미래 세대와 지구 생태계까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

#### 참고문헌

- Van Parijs, P. & Vanderborght, Y., (2018), 『21세기 기본소득』, 홍기빈 역, 오월의 봄. (원서출판 2017)
- 이상준. (2021). 「참여소득, 캐퍼빌리티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시민과 세계』, (38), 107~160.
- 이상준. (2022). 『일·복지·민주주의를 위한 참여소득』. 서울: 온마음.
- FRIBIS 홈페이지(<https://www.fribis.uni-freiburg.de/en/fribis/>)

[참고] FRIBIS 연구소 소개<sup>1)</sup>

(1) FRIBIS 이사회

프라이부르크 기본소득 연구소 FRIBIS는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있는 6개의 다른 연구소와 교수진으로 구성된 역량 네트워크이다. FRIBIS 이사회에는 경제정책 및 질서이론 Order Theory의 학과장인 베른하르트 노이머커 교수 Prof. Dr. Bernhard Neumärker를 포함하여 심리학, 신학, 사회·문화인류학, 교육학, 컴퓨터 공학·인공지능 관련 분야에 있는 6명의 교수가 소속되어 있다.

(2) FRIBIS Matrix

FRIBIS 팀은 보통 3-4명의 과학자(연구자)와, 주로 그들의 경험을 통해 특정한 연구주제에 대해 전문가로 입증된 2-3명의 비학술적 활동가로 구성된다. 이러한 활동가 그룹은 팀 매트릭스에서 “전달 그룹 Transfer Group”으로 불리는데, 자신의 지향과 경험을 연구에 접목하고 그들의 인맥과 기술을 통해 연구결과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FRIBIS 팀과 팀원들은 서로 교류하며 활동범위를 넓히고 네트워크 전체를 확장한다. 각 팀에는 코디네이터가 배정되어 팀의 업무를 지원하고 다른 팀과의 협력을 꾀한다. 아래 표는 FRIBIS 팀 구성의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다.

팀 주제	VATUBI (부가가치세 재원의 보편적 기본소득) LFT
연구 그룹 (대개 3-4명)	Prof. Dr. F. Schneider; Dr. E. Dreer Dr.F. Wakolbinger; Prof. Dr. B. Neumärker
전달 그룹 (대개 2-3명)	H. Page; E. Schmidt
코디네이터	FRIBIS-Dok.

FRIBIS 팀은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연구팀으로 참여하거나, 계획된 UBI 프로젝트의 타당성 평가 연구 및 전문가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과거의 프로젝트와 경험연구를 평가하고 이를 미디어에 소개한다. 신청서가 제출된 후 FRIBIS 이사회에서 FRIBIS 팀으로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활동 중인 팀은 기간 연장을 위해 후속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FRIBIS 팀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① 표준 FRIBIS 팀 (SFT)

- SFT로 승인받으려면 비공식 신청서가 필요함. SFT는 여행경비, 이벤트 및 개별활동, 회의비, 제3자에 대한 소정의 사례금, 언론 홍보 및 출판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SFT는 많은 재정 지원이 제공되지 않음.

② 대형 FRIBIS 팀 (LFT)

1) 해당 홈페이지의 자료를 요약한 내용이다.

- LFT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예산, 일정, 사전 작업목록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LFT는 신청에 따라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자를 고용할 수도 있음.

③ 외부 FRIBIS 팀 (EFT)

- EFT는 자체 자금이 있는 기존의 팀으로, FRIBIS 네트워크 멤버십을 통해 교류 및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음. FRIBIS 재정 지원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제공됨.

(3) FRIBIS 재정

FRIBIS는 제3자 펀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며, FRIBIS의 창립 이사인 베른하르트 노이머커 Bernhard Neumärker 박사가 이끄는 경제정책 및 헌법경제이론을 위한 괴츠 베르너 교수직 Götz Werner professorship<sup>2)</sup>에서 출발했음. 괴츠 베르너 교수직은 베아트리체와 괴츠 W. 베르너 부부의 기부에 의해 형성됨. 괴츠 베르너는 독일의 대형 약국 체인 업체인 dm-drogerie markt 회사의 CEO로, 독일어권에서 가장 저명한 UBI 지지자 중 한 명임. 참고로 베르너는 2005년 이후에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삼아 1,000유로(당시 독일 1인당 GDP의 약 35%)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의 영향으로 2016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발의한 이들도 부가가치세를 주재원으로 제안했다(Van Parijs & Vanderborght, 2018: 356에서 재인용).

(4) FRIBIS 팀

FRIBIS 팀은 총 16개로 구성된다. 각각의 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를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팀명	목표	내용	관련 출판물	연구자 그룹
1 평화구축을 위한 기본소득 (BIP)	한 사회가 탄력성, 지속가능성, 평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지원하기 위해, 분쟁 후의 맥락에서 기본소득의 적용가능성을 조사함	분쟁 연구에서 국제적 관점을 도입하여, 세 가지 구체적 사례연구에 초점을 둠 분쟁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서로 다른, 스리랑카 북부, 북아일랜드, 이라크와 시리아에 초점	M. Franke, B. K. J. Neumärker 2022: "A Climate Alliance through Transfer: Transfer Design in an Economic Conflict Model", World 2022, 3(1), 112-125.	Dr. John Barry Diana Bashur(Doctoral Student) Patrick Brown(PhD in Politics) Prof. Dr. Roberto Leombruni Marcel Franke(PhD candidate)
2 Basisgeld	독일에서 "Basisgeld"로 알려진 부분기본소득의 매개변수를 조사함	과학, 정치, 정책결정이 결합된 팀. 매개변수에는 아동수당, 교육급여, 임시소득(스위스), 시민 소득에 대한 혜택감소를 변형 등의 문제를 포함	논문 및 정책보고서 시리즈는 게재될 예정이며, 의사결정자에게 전달될 예정	Prof. Dr. Alexander Spemann Dr. med. Baukje Dobberstein Prof. Dr. Ute Fischer Dr. Stefan Bach Dr. Wolfgang Strengmann-Kuhn

2)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gwp.uni-freiburg.de/en/goetz-werner-professur-gwp-fuer-wirtschaftspolitik-und-ordnungstheorie-english/> 괴츠 베르너에 대한 일화는 아래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https://basicincometoday.com/goetz-werner-the-first-inspirer-of-ubi-in-germany-has-died-at-age-78/>



3	자연과 기후를 위한 기본소득 (BINC)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과 관련한 사회/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접근방식 탐색	인도네시아 뉴기니(타나 파푸아)의 삼림 내 탄소저장량 보호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연구	Mumbunan S., Maitri, N.M.R., Tazkiana, D., Prasajo, A., Sihite, F., Nabella, D.M. (2021). Basic Income for Nature and Climate. On the first Basic Income proposal to conserve nature and combat climate change on the largest tropical island on Earth. Depok: Research Center for Climate Change Universitas Indonesia. (ISBN 978-602-60534-3). Schmidt-Pramov, F. (2021). A basic income for nature and climate in Tanah Papua. Berlin: GlZ. (Policy Brief).	Dr. Sonny Mumbunan Gudrun Kaufmann(PhD candidate)
4	돌봄 (CARE)	돌봄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이 사회적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엇인지 탐구함	사회의 돌봄 활동과 관련하여 UBI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	Prof. Dr. theol. Klaus Baumann Prof. Dr. Ute Fischer Gudrun Kaufmann(PhD candidate) Verena Löffler(PhD candidate) Lucia Tonello
5	탐험기 본소득 (Expedition BGE)	Expedition Basic Income은 어떤 기본소득 방식이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지 실험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대규모의 전국적인 국가지원 파일럿 프로젝트의 틀 내에서 달성될 것임	직접 민주주의와 보조성을 통해 UBI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함. 독일 전역에서 파일럿 추진을 위한 서명을 수집하며, 이후 해당 지역의 지방의회는 수락여부를 결정함.	영상자료 <a href="https://www.youtube.com/">https://www.youtube.com/</a>	Julia Prof. Dr. Jürgen Schupp Baumhauer(Ethnologist)
6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본소득의 효과를 '현상 유지' 기본 시나리오 및 대안적 개혁안(근로수당, 선별적 사회부조, 기타 유형의 보편적 현금이전)과 비교하여 평가함. 주요 효과는 재정비용 및 시사점, 분배 효과, 금융 노동시장의 인센티브 효과임	기본소득 연구 관련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개선하고 개발하고, 유로배당과 같은 특정 안 또는 특정 국가의 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방법론적 자료들을 제공함.	Torry, M. (2021). Feasibility study: A Basic Income pilot project for Wales. A response to the report "Piloting a Basic Income in Wales" (No. 02-2021). FRIBIS Discussion Paper Series. Chrisp, J., Smyth, L., Stansfield, C., Pearce, N., France, R., & Taylor, C. (2022). Basic income experiments in OECD countries: A rapid evidence review. Richiardi, M. (2022). A basic income for France: Ideas for a debate (No. 02-2022). FRIBIS Discussion Paper Series.	Prof. Ugo Colombino Dr. Valerija Koroec Dr. Aida Garcia-Lazaro Prof. Nick Pearce Prof. Matteo Richiardi Dr. Malcolm Torry Dr. Stephen Nuñez Jack Landry(Research Associate) Dr. Eric Qiao
7	보편적 기본소득 비정부기구 (MUBINGO)	UBI 실현을 미션으로 삼은 NGO를 위한 효과적인 소셜 마케팅 접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사회혁신 연구의 접근법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수용의 동인을 파악하고, 인구집단별 다양한 기본소득에 대한 선호도를 추정함. 나아가 시민의 지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설계함.	-	Prof. Dr. theol. Klaus Baumann Prof. Dr. Jörg Lindenmeier Prof. Dr. Dieter K. Tschewlin
8	네트워크 분석 및 재무 다이어리 (NetF)	기본소득을 분배 기제로 사용하는 상호보완적인 지역화폐를 연구함	현재 세 가지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중임	-	Prof. Dr. Janos Kertész Sowelu Avanzo(PhD student)



9	참여와 UBI - 미래의 내러티브 (PartUBI)	직접적이고 참여적 형태 뿐만 아니라 경제적 '내러티브'로서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함	철학적, 문화적 연구 관점에서 경제적 내러티브로서 기본소득을 살펴봄	Leon Hartmann's dissertation (working title: "Futures of democracy. On the relationship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unconditional basic income")	Prof. Dr. Sebastian Kaufmann PD Dr. Robert Krause Prof. Dr. Andreas Urs Sommer Milan Wenner, M.A.
10	제재없음 (Sanctions-Free)	하르츠플러스(HartzPlus) 연구는 2019년 1월-2022년 봄에 종료됨	베를린의 사회경제 연구소(INES)와 함께 HartzPlus라는 독립적인 과학 실험을 수행하여 향후 3년 동안 우리의 개입이 참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	<a href="https://sanktionsfrei.de/assets/Hartzplus-Studie_Endbericht.pdf">https://sanktionsfrei.de/assets/Hartzplus-Studie_Endbericht.pdf</a>	Aseman Golshan Bahadori(M.Sc. Research Associate) Claudia Comelsen(M.A. in art history, German studies, philosophy) Dr. Tanja Schmidt Dr. Verena Tobisch
11	사회계약과 신질서 자유주의 (SOCOBIS)	현대 사회계약론을 탐구하고 기본소득 사회를 위한 사회계약 조건과 규칙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함. 이를 통해 노이마커 교수가 제안한 신질서 자유주의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프라이부르크 대학 사회계약연구소 (SoCoLab)과 협력하여 계약이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며, 사회계약의 지속가능성 요건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진행함	-	Dr. Otto Lehto Clem Davies(research associate) Prof. Dr. Bernhard Neumärker
12	보편적 기본소득과 젠더 (UBIG)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페미니스트 기본소득 제안을 구별하는 주요 특징이나 요소는 무엇인지, 관련 긴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등에 대해 연구함	-	Prof. Dr. Almaz Zelleke Prof. Dr. Toru Yamamori Chloe Halpenny(PhD student) Clem Davies(PhD candidate)
13	보편적 기본소득과 사회-생태적 전환 (UBITrans)	보편적 기본소득이 사회-생태적 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함	녹색성장, 포스트성장, 탈성장에 이르는 다양한 잠재적 시나리오를 고려하면서 기본소득이 사회문화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연구함	2022년 6월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강의 시리즈가 진행 중임	Dr. Ulrich Schachtschneider Hanna Ketterer(sociologist) Dominik Schröder(PhD student)
14	보편적 기본소득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경제적 조건이 유리함. 이 국가에 가장 효과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함.	리히텐슈타인의 재정 예산을 분석함. 유관 대학과 연구소와의 정보 교류를 위해 공동 워크숍과 심포지엄을 개최함	-	Dr. Tanja Kim Anna Bojko(M.Sc. Economics) Dr. Hartmut Hübner Kyra Sophie Rimrod(M.Sc. Economics) Dr. Elisa Streuli
15	부가가치세 재원의 보편적 기본소득 (VATUBI)	기본소득의 재원조달 형태로서 VAT에 대해 연구함	그림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소비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제변화의 영향과 기본소득의 재원조달 형태로서 VAT에 대해 연구함	-	Dr. Elisabeth Dreer Prof. Dr. Bernhard Neumärker Prof. Dr. Dr.h.c.mult. Friedrich Schneider Dr. rer. soc. oec. Florian Wakolbinger
16	물-에너지-식량 결합 및 대외원조 기본소득팀 (WEF_FAB)	기본소득 도입이 개발도상국의 사회 및 생태시스템 회복력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조사함	기본소득이 효과적인 개발원조 수단으로 어느 정도 사용될 수 있는지, 그 적용 맥락이 기본소득 기제에 어떤 영향을 부과하는지 살펴봄	-	Prof. Dr. Bernhard Neumärker Prof. Dr. Michael Jacobson Prof. Dr. Reinhart Kössler Dr. Elina David-Teodol Prof. Dr. Elizabeth Ransom